



## 한국 대학 신입생의 영어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MBTI 성격유형의 활용 가능성 탐색

이경량 (세종대학교)

Received: 11 August 2024  
Revised: 13 September 2024  
Accepted: 22 September 2024

Lee, Kyoung Rang. (2024). Exploring application of MBTI personality types for improving English reading performance among Korean university freshmen. *Modern English Education*, 25, 276-291.

### Keywords

MBTI personality type, style analysis survey, English language learning styles, English reading performance  
MBTI성격유형, 스타일분석 설문지, 영어학습스타일, 영어 읽기능력

### Kyoung Ra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jong University  
[kranglee@sejong.ac.kr](mailto:kranglee@sejong.ac.kr)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potential applicat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s in English learning among Korean university freshmen. It compared relationships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English language learning styles and examined their impact on reading performance. Data from 50 students were analyzed. While commonly discussed MBTI types (such as Thinking-Feeling)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learning styles (such as Visual, Koreans' dominant learning style), some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observed in combinations such as Extraversion-Introversion and Extroverted-Introverted, iNtuition-Sensing and Concrete-Sequential-Intuitive-Random, and Judging-Perceiving and Closure-Oriented-Open combinations. Interestingly, in the post-test, students with mismatched personality types and learning styles (e.g., Sensing and Intuitive-Random) outperformed those with matched pairs (e.g., Sensing and Concrete-Sequential). However, overall improvement in reading score was more significant when personality types and learning styles were aligned. This suggests that students can benefit from personalized approaches based on their familiar MBTI types in relation to learning styl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including interviews or think-aloud protocols, to deepen understanding of these findings. Despite limitations such as a small sample size,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grating familiar MBTI terms into English learning could enhance student engagement and reading outcomes.

## 서론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히 익숙해진 성격유형지표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Myers, McCaulley, Quenk, Hammer, 1998)를 영어학습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영어를 포함한 모든 학습에서 읽기는 가장 기본이 되므로(Lee et al., 2023; Smith et al., 2021),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MBTI를 활용하여 영어 읽기능력과 관련이 있는 성격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어 읽기능력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영어학습스타일(English Language Learning Styles)이 있으며, 이 중 Oxford(1993)의 다섯 가지 구분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신체 감각 선호도(how you use your physical senses for study), 대인 관계 선호도(how you deal with other people),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식 선호도(how you deal with possibilities), 과제 접근 방식 선호도(how you approach tasks), 사고 전개 방식 선호도(how you deal with ideas)로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Style Analysis Survey; SAS)도 개발되어 있어 수월하게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스타일을 분류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영어학습스타일은 학습과 관련한 인지적인 요소에 기초한 것이지만 MBTI와 유사한 구분을 포함하고 있어,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 MBTI를 영어학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MBTI는 학문분야에서는 성격유형을 진단(diagnose)한다기 보다는 긍정적인 묘사를 주로 포함하고 있어 치료(therapeutic)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tein & Swan, 2019).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생활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장년 학습자들에게는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 대한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유형이 학습자의 학습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Reid, 1995), 이 두 요소는 학습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다(Ackerman, 1996; Carrell, Prince, & Astica, 1996). 그러나 성격유형과 학습스타일이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학습의 기본인 영어 읽기 성취도를 중심으로 두 요소의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Sadeghi et al., 2012).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개념을 영어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가 친근하고 수월하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관련한 행동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학습자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스타일을 알아낼 수 있으며, MBTI는 그러한 학습스타일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것이다(Vincent & Ross, 1996).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지표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SAS 영어학습스타일과 MBTI 진단 결과를 비교하여 두 지표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영어 읽기 점수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이후 영어학습의 방법이 급격히 달라지기 전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읽기능력과 MBTI 성격유형 및 SAS 영어학습스타일을 진단한 후,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성격유형을 읽기능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실시와 해석 상담이 필수적인 MBTI는 학교 학생상담소와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읽기 수업을 통해 본인의 영어읽기 습관과 행동을 파악하고 해당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본인의 영어학습스타일 및 성격유형에 따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어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영어학습에 적용하여, 스스로 영어 읽기능력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과정들이 영어 읽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선행 연구 분석

영어를 포함한 학습 분야에서 집단적인 교수법 등을 벗어나 개별적인 학습자들의 차이(individual differences)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격(personality)'에 대한 연구도 함께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격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기분, 태도, 의견이며,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타고나거나 습득된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격이 개인들을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Holzman, 2020). 다시 말해, 성격은 선호도, 동기, 성향 등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차이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심리학적, 행동유형적, 상호작용적 측면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undgren et al., 2017). 이와 유사한 학습스타일은 학습 상황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개인이 선택을 하게 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Datan et al., 1987; Ehrman, 1990; Wheelis, 1973)에 영어교육 관련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 성격특질과 성격유형 이론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Allport(1937) 등이 주목한 성격 특질(trait)이 있고, Jung(1921)과 Myers와 동료들(1998)의 성격유형(type)을 들 수 있다. 우선, Allport(1937)는 주어지는 많은 자극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대응하고 일관된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하는 일반화된 신경정신적 반응<sup>1</sup>인 개인적 성향(personal disposi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약 30년간의 연구 후에 다시 성격을,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학적인 과정(Allport, 1961)이라고 정의하며 세 가지 층위의 특질로 구분하였다<sup>2</sup>. 이후 Cattell(1965)은 성격 특질에 대해서 행동은 성격과 상황이 대입된 함수라는 공식을 제안했고, 성격은 누구나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16가지<sup>3</sup>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성격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Eysenck(1982)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이는 신경체제(nervous system)와 같으므로 생물학적인 요소가 성격에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타고난 성격은 외향과 내향(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신경증적 성질과 안정성(neuroticism and stability)처럼 연속선(continuum) 상에 있는 것이라 각 특성이 다 있지만 더 강한 쪽과 더 약한 쪽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격 특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은 1990년대에 이르러 Big 5 성격특질(Big Five Personality Traits)로 정리가 되었다. 성격을 이루는 다섯 가지 주요 특질로 외향성(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우호성(agreeableness), 신경성(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서, 개개인이 일정 상황에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Big 5 성격특질 요소는 성격에 대한 한 가지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학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립하였기 때문에 성격 관련 연구에서는 널리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Cervone & Caprara, 2001; Furnham et al., 2003; Pittenger, 2005).

앞에서 언급한 MBTI는 성격유형에 대한 또다른 분류로서 Jung(1921)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위에서 언급했던 성격 연구들에서 연속선 상에서 각각 양 끝의 특질의 정도로 설명을 하던 것과는 달리, 세 가지 이분된 차원(dichotomous dimension)으로 나누었다(Extraversion-Introversion, Sensing-iNtuition, and Thinking-Feeling). 각각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거듭하여, 각 차원들은 하나만 안다고 해서 개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우므로, 두 세가지 차원들을 섞어서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하게 될지를 외향성 하나만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후 판단과 인식(Judging-Perceiving)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고안하여 여덟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유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MBTI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먼저 제시했던 세 가지 구분을 혼합한 네 가지 유형(감각 우세 외향성, 감각 우세 내향성, 직관 우세 외향성, 직관 우세 내향성)을 인식 유형, 또 다른 네 가지 혼합 유형(사고 우세 외향성, 사고 우세 내향성, 감정 우세 외향성, 감정 우세 내향성)을 판단 유형이라고 칭하였다.

Jung은 이러한 유형을 나눌 때 외향과 내향은 태도와 관련한 것이고,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은 기능과 관련된 유형이라 태도와 기능이 혼합한 성격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각각에는 우세한 기능과 부차적인 기능이 있어서 혼합을 할 때 우세 기능을 언급했던 것이고, 부차적인 기능까지 넣은 분류를 하게 될 경우 16가지의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lutner & Hochnadel, 2010). 이후 Briggs와 Myers가 정리한 16가지의 분류인 MBTI가 Jung의 성격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널리,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서로 비슷해보이는 Big 5 성격 특질과 MBTI는 서로 사용하는 용어에서 차이가 보이듯이, 성격특질은 각 개인이 나타내는 행동의 경향성을 보여준다면, 성격유형은 각 개인 자체에 대한 특성화(characterization)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이론에서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성격특질 이론에서는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연속성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질을 모두 나타내는 중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지만, 성격유형 이론에서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각각 두 가지 다른 그룹으로 분류를 한다. Kaushal과 Patwardhan(2018)이 정리했듯이, 성격유형은 이산적(discrete)이지만 성격특질은 연속적(continuous)이다.

<sup>1</sup> generalized neuropsychic (particular to the individual) with the capacity to render many stimuli functionally equivalent, and to initiate and guide consistent (equivalent) forms of adaptive and stylistic behaviour

<sup>2</sup> cardinal traits, central traits, and secondary traits

<sup>3</sup> warmth, reasoning, emotional stability, dominance, liveliness, rule-consciousness, social-boldness, sensitivity, vigilance, abstractedness, privateness, apprehension, openness to change, self-reliance, perfectionism, and tension

이는 애초에 Jung이 판단과 인식 차원을 추가하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태도 차원(외향성과 내향성)과 기능 차원(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을 혼합하여 각각 네 가지씩의 판단 유형과 인식 유형으로 구분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다시 말해, Jung은 우세 기능 8가지 유형, 부가 기능 8가지 유형을 강조하는 사람 성격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므로, Big 5 성격특질 요소와 같은 성격특질 연구보다는 더 이산적인 분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론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인 분류 방법을 택하게 됨으로서 과생되는 문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비판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로 측정할 수 있는 16가지 성격 유형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전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관련한 활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 영어학습 관련 이론과 영어학습스타일 모델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배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어학습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변화하고 있다(e.g., Lee et al., 2023). 특히 모국어를 습득한 후 두 번째로 배우는 언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모두 제2언어(second language; L2)로 칭하고(Oxford, 1990), 그 중 L2로서의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다. 따라서 L2를 일상생활 또는 교실상황에서 어떻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지, 학습자들이 문법적 또는 화용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 연구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Celik, 2015). 학습자코퍼스, 교실상황 데이터, 설문지 활용, 질적 연구 등 연구 디자인과 도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Mackey & Gass, 2012).

특히 언어를 학습하고 습득할 때 중요한 것은 중간언어(interlanguage) 학습 과정(process)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며(Long, 1990), 그 중 영어학습자들의 영어학습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영어학습을 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의도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인 영어학습전략이 포함되고, 이 전략 선택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영어학습스타일이 있다(Oxford, 1990, 2003).

학습자들의 문화적 배경, 모국어, 나이, 동기 등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 영어학습스타일은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격이 각 개인이 여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것처럼, 영어학습스타일이 영어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 개인이 선택을 하게 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Chen & Hung, 2012; Datan et al., 1987; Ehrman, 1990; Wheelis, 1973). 영어학습스타일은 각 개인이 언어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이어도 어떤 학생은 싫어하고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데 이러한 개인마다의 선호도를 의미한다(Oxford, 2003). 다시 말해, 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학자마다 다양한 학습스타일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중 성격특질과 유형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포함한 Oxford(2003)의 영어학습스타일 분류와 측정 도구(SAS)가 우리나라 영어학습자 대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에 대한 개념 정리

### MBTI 성격유형

MBTI는 외향성(Extraversion; E)과 내향성(Introversion; I), 감각(Sensing; S)과 직관(iNtuition; N), 사고(Thinking; T)와 감정(Feeling; F), 판단(Judging; J)과 인식(Perceiving; P)으로 크게 8가지 지표의 조합으로 16가지 성격유형을 만들어낸다. 외국어와 관련하여 각 지표의 쌍에서 어떤 유형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는데(Moody, 1988), 이에 대해서는 각 지표의 특징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향성과 내향성(E-I) 지표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으로, 외향적 학습자들은 에너지를 밖에서 충전하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어학습에 대해서도 외향적 학습자들은 팀활동이나 말하기 활동 등에서 내향적 학습자들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내향적 학습자들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충전하므로(Bayne, 2005) 읽기나 쓰기 등의 개별적 활동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직관과 감각(N-S) 지표는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때 감각이나 직관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직관형은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고 나무보다 큰 숲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고, 감각형은 오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실용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 영어학습과 관련해서는 두 지표가 학업 성취도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보다는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사고와 감정(T-F) 지표는 사고형이 감정형에 비해 영어 규칙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유리할 것이라 예측한다. 감정형은 사고형보다 온화하고 우호적인 특징이 있어 의사소통에 유리하므로 영어 말하기나 듣기 등에 강점을 보일 것이라 기대된다.

판단과 인식(J-P) 지표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므로 판단형이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는 메타인지가 발달하여 영어학습에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식형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학습보다는 생활 영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SAS 영어학습스타일

영어 및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스타일 분석을 위해 많이 이용되는 측정도구로 Oxford(1993, 2003)의 SAS가 있으며 이는 신체 감각 선호도, 대인 관계 선호도,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식 선호도, 과제 접근 방식 선호도, 사고 전개 방식 선호도로 분류한다. 각 항목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Ehrman, 1996) 학생들의 스타일은 다섯 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교차 분석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각적 자료(신체 감각 선호도 중 시각적)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한 학생이 이와 동시에 순차적인 설명을 들 때(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식 선호도 중 연속-구체적)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분류의 스타일에 대해 교차 분석할 수 있다. 영어학습 스타일에 대한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 감각 선호도는 학생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신체 감각적 학습 자료 및 환경을 말하며 시각적(visual; V), 청각적(auditory; Au), 조작적(hands-on; H)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 Reid(1987)는 주로 아시아 영어학습자들이 시각적 학습자들이며 남미 영어학습자들은 청각적 학습자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특히 한국의 영어학습자들이 가장 시각적이라고 하였다.

대인 관계 선호도는 어떤 방식의 대인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한 구분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경우 외향적(extroverted; Ext<sup>t</sup>) 학습자이고 이와는 반대로 학습자 본인의 내면과의 소통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우 내향적(introverted; Int) 학습자라고 볼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식 선호도는 주어진 일이 현재 주어진 사실에 기초할 때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연속-구체적(concrete-sequential; CS) 스타일의 학습자와 새로운 가설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을 즐기며 본인만의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즉흥-추상적(intuitive-random; IR) 스타일의 학습자로 분류한다.

과제 접근 방식 선호도는 과제를 빨리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일을 정해 놓고 하나씩 끝내는 것을 좋아하는 마감지향적(closure-oriented; CS) 학습자와 동시에 여러 가지의 과제를 진행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해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기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개방형(open; O) 학습자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전개 방식 선호도는 주제 및 요점 파악을 위주로 큰 그림을 그리는 통합적(global; G) 스타일의 학습자와 세부 사실을 꼼꼼히 파악하는 분석적(analytic; A) 스타일의 학습자로 분류한다.

##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 선행 연구

Ayadi와 동료들(Ayadi, Chatterjee, & Woldie, 2006)은 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과 종류별 주관식 및 객관식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총 244명의 경제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한 결과, N과 T 유형 학생들은 주관식을 어려워했고, N, S, T 유형 학생들은 주관식 이론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다. N 유형 학생들은 객관식에서는 잘하지 못했지만 객관식 이론 시험에서는 잘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성격유형과 종류별 주관식 및 객관식 시험 성적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이 결과로부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테스트 형태와 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teele와 Young(2011)은 음악교육자들과 음악치료전문가들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간에 NFP 조합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Jung이 성격 유형이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했던 것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성격유형은 특정 학업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sup>4</sup> MBTI 성격유형의 외향성과 내향성과 영어학습스타일의 외향적 및 내향적 스타일이 비슷하므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약어를 사용함.

예측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특정 과업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에게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므로 학습스타일보다 더 지속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MBTI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던 연구(Bell et al., 2011)에서는 흥미롭게도 학습자와 교수자의 성격유형이 일치하면 학생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도, 직업 동기, 학습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와 영어듣기 능력, 영어학습전략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J. Kim(2017)의 경우, 영어학습전략의 사용 정도와 각 지표 구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네 가지 지표 중 J-P 지표가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가 흥미로웠다. 참여 고등학생들은 직접 전략을 간접 전략보다 자주 사용했는데, 이 때 직접 전략은 영어학습을 할 때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을 직접 활용하는 행동들에 대한 것이라 직접 전략이고, 간접 전략은 인지적 자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평가하고 모니터 할 것인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감정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 등 직접적인 행동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간접 전략이라고 칭한다(Oxford, 1990). 해당 연구에서는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듣기전략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따른 맞춤형 지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E 유형 학습자에게는 협동 학습, S 유형 학습자에게는 구체적 문법 설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영어듣기 능력을 측정하여 MBTI 유형에 따른 듣기성취도 결과를 비교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영어학습전략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어학습스타일과의 비교가 선행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영어학습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업 성취도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영어학습전략의 이용 정도와 영어학습스타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예측가능성을 알아본 연구가 있다(Lee, 2008). 영어학습전략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영어 성취도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는 영어 성취도가 높을수록 영어학습전략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것에 기초하여, 영어학습전략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학습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했던 연구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학습스타일 중 G-A 스타일 구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전체적 주제를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는 G 스타일과 구체적 문장, 단어 등을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는 A 스타일의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전략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영어학업 성취도 자체의 점수 비교는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성취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성격유형은 특히 영어와 같은 L2 학습에 인지적 요인 외의 정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격유형과 학습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증가하였다(Carrell et al., 1996). 그러나 성격유형과 학습의 관계를 직접 알아보기 보다는, 성격이 일정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보이는지와 관련된 학습스타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ckerman, 1996). 성격유형이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행동과 관련된 학습스타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경우는 많았지만(Ehrman, 1996; Ehrman & Oxford, 1995), 직접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경우는 MBTI 성격유형 중 E-I 지표가 대부분이었다(Dewaele & Furnham, 1999; Pfister, 2000). 예를 들면, Dewaele와 Furnham (1999)는 약 30여개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L2에서의 정확성은 항상 E-I와 명확한 관계가 있지는 않았지만, E 유형인 사람이 모국어와 L2 모두 내향적인 사람보다 유창하였으므로, E-I 지표가 말하기 연구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였지만 역시 일부 유형에 불과하였다. 읽기 능력과 관련해서는, Pfister (2000)가 미국의 이중언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읽기 문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비교를 한 결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E 유형 학습자들이 I 유형 학습자들보다 읽기 성적이 좋았다는 것 외에 읽기 성취도 향상과 각 성격유형의 관계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요약하자면, 성격유형이 학습상황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예측하게 해주듯이 영어학습스타일은 영어학습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Datan et al., 1987; Ehrman, 1990; Wheelis, 1973), 두 가지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은 여러 가지 정의 및 분류가 시도되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도로 퍼져나간 성격유형 진단 도구인 MBTI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영어학습스타일도 다양한 분류와 진단 도구가 있지만 성격유형과 유사한 분류를 포함하고 있는 SAS를 활용하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언어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이어도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좋아하는 학생도 있는 것처럼 개인마다의 선호도인 영어학습스타일(Oxford, 2003)이 성격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변인들이 실제로 영어읽기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 특히 입학 직전까지 대학 입시라는 비슷한 시험을 위한 학습 방법을 활용했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자로서의 본인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영어학습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실제로 영어읽기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읽기 향상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질문 1. 연구 참여 대학 신입생들의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 분포 및 관계는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이 있는가?

연구질문 2. 연구 참여 대학 신입생들의 읽기 점수(총점, G-A 문제 유형)는 어떠한가?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조합에 따라 읽기 점수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방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자로서의 이해를 도모하고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영어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요즘의 영어학습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개념 중 하나인 MBTI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영어학습스타일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영어 성적과의 비교를 통해 영어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성격유형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는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비슷한 유형으로 공부를 해 왔고 대학 입학 이후에 급격하게 영어학습 방법, 빈도, 동기 등이 달라지기 전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총 58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신입생이 아닌 학생 6명, 응시하지 않았던 시험과 과제가 있었던 학생 2명을 제외하고 총 50명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어 학부에 입학한 신입생들로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이며 입학한 직후였기 때문에 수능 영어 공부의 수준과 결과가 거의 비슷한 상태였다.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명 있었지만, 이들을 포함한 사전시험에서 성격유형 및 학습스타일별 영어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은 21명, 여학생은 29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였다. 특히 MBTI를 공식적으로 진단받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학교 활동 중에 실시해보았다는 학생이 2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의 간단한 버전으로 입학 전 고등학교 때 실시를 해 본 것으로 최근에는 진단해 본 적이 없었다.

###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 영어읽기 성적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였다. 우선 MBTI 성격유형은 전문가가 측정하고 해석을 해주어야 하므로 학교의 학생상담소에 협업을 요청하여 수업 중 활동으로 일괄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문자로 보내진 링크에 접속하여 한국어로 제시된 문항에 대해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4쌍의 성격유형(E-I, N-S, T-F, J-P)의 16가지 조합 해석을 위해 워크숍을 1회 진행하였다.

영어학습스타일은 Oxford(1993)의 SAS 110 항목을 구글폼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한국어로 제시되었으며, 수업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빠르게 읽고 선택하였다. 다섯 가지의 영어학습스타일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5쌍(G-A, V-Au-H, Ext-Int, CS-IR, CO-O)의 각 유형에 대해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분류에 대해 개별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0에서 4의 정도(Likert scale)로 응답을 하여 각 분류 내 점수가 높은 것이 더 강한 스타일이라고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 CO 스타일 점수가 25점, O 스타일 점수가 14점일 경우 점수가 더 높은 CO 스타일이 더 우세하여 마감지향적 학습자로 판단한다. 개별 진단서를 배부하고 본 연구자가 참여 학생들의 결과 해석을 돕기 위해 워크숍을 1회 진행하였다.

영어읽기 점수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표준화된 시험(standardized test)인 토익(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의 읽기 시험을 활용하였다. 사전과 사후의 시험으로

난이도와 종류 및 주제 등이 같은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 입학 후 어학 장학금 및 교양 필수 과목의 성적 요건으로 지정되어 시험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시험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존 연구(S. Kim, 2016; Lee, 2008)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스타일 분류였던 G-A 구분을 실제 영어 시험 성적과도 연관시켜 분석을 하기 위해, 시험 문항을 분석한 후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G 문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는 A 문제로 분류하여 사전에 코딩을 해두었다. 총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격유형 및 학습스타일에 따라 G-A 문제 점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자료수집방법

신입생 대상으로 열리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표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성격유형 및 영어학습스타일, 토익을 활용한 영어 읽기 시험에 대한 수업 중 진단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공지하였다. 영어학습자로서의 본인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할 것이라는 안내에 동의한 학생들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참여하였다.

같은 과목명으로 2개의 강좌가 열려 수강한 총 58명(28명, 30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과업, 수업 자료, 내용 등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MBTI의 특성상 학교 내 학생상담소와의 협업이 필요했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 계획된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개강 후 2주차에 학생들은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업 중 활동으로 약 15분 동안 MBTI를 진단하였다. 그 다음 주에 학생상담소의 전문가가 교실에 방문하여 수업 중 약 1시간 동안 해석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학생 개개인이 본인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또한 4주차에 학생들의 영어학습스타일을 진단하기 위해 수업 중 강의실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SAS를 약 15분 동안 진단하였다. 5주차에 영어학습스타일 및 전략 전공자인 본 연구자가 각 학생들의 영어학습스타일 결과지를 배포한 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위한 워크숍을 약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MBTI 성격유형 및 SAS 영어학습스타일 결과를 확인한 후에 본인의 읽기능력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으므로 5주차에 영어읽기 사전 시험을 시행하였다. 6주차에 채점된 시험지를 보고 본인의 MBTI 성격유형 또는 SAS 영어학습스타일에 따라 어떤 문제를 더 풀기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성찰하도록 하였다. 영어학습스타일은 개념을 이해하기 쉬웠어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읽기 시험을 본 후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에 대해 활용하기 어려워했지만, MBTI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활용하였다. 이렇게 본인의 영어읽기 점수와 읽기행동, 성격유형 및 영어학습스타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활동을 6주간 진행한 후, 영어읽기 사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 자료분석방법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 분류는 각각 범주형 변수이므로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MBTI의 4쌍의 범주(E-I, N-S, T-F, J-P)와 영어학습스타일의 5쌍의 범주(G-A, V-Au-H, Ext-Int, CS-IR, CO-O)를 학생 개개인별로 코딩하여 사회과학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sion 18)로 분석하였다.

또한 영어읽기 성적, 사전 시험과 사후 시험의 총점과 G-A 문제 유형의 각 합은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 범주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ANOVA를 실시하였다. 각 범주 내에서의 비교를 할 때는 데이터를 범주에 따라 분할한 후 각 통계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논의

###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 분포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 신입생들의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각 영어학습스타일의 분포 및 유의미한 정도는 매우 흥미로웠다. 기대했던 대로 E-I와 Ext-Int 스타일( $p < .001$ )이 유의미한 관계였으며, N-S와 CS-IR( $p < .001$ ), J-P와 G-A( $p < .001$ )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J-P는 추가적으로 CO-O( $p < .001$ )와도 유의미한 관계였으며, T-F는 유의미한 관계를 이루는 영어학습스타일 분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참여 대학생들의 성격유형 중 외향성과 내향성은 영어학습스타일의 외향적과 내향적 스타일과 매우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외향성과 내향성이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에서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E유형의 학생이 그룹활동이나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EExt = 16, 72.7%), I 유형의 학생이 개별이나 소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IInt = 24, 85.7%).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은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유형 중 N과 S는 영어학습스타일 중 CS와 IR 스타일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S 유형이 오감과 관련이 있어 실용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것과 영어학습을 할 때 구체적인 지시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고 나무보다 큰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는 N 유형이 영어학습을 할 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스타일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N과 IR이 일치하는 학생이 더 많고(NIR = 18, 75.0%), S와 CS가 일치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SCS = 23, 88.5%)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의 성격유형이 영어학습 상황에서의 선호하는 스타일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Jung이 마지막으로 추가하면서 나머지 3개의 태도(E-I) 및 기능(N-S, T-F)을 조합하는 전체적 유형으로 설정했던 J-P는 흥미롭게도 영어학습스타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영어학습스타일 중에서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행동(전략)을 할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Lee, 2008) G-A 분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계획을 잘세운다는 J 유형이 전반적인 학습에 대해 주제와 요점 파악을 위주로 접근하는 G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만, 적응력이 뛰어나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P 유형도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려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세부 사실을 꼼꼼히 파악하는 A 스타일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결과로도 J와 P 모두 G 성향을 가진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G = 16, 61.5%, PG = 21, 87.5%). J와 P가 G와 A의 성향과 각각 일치한 것이 아니므로, 두 분류의 관계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J-P와 G-A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과 스타일끼리 일치하는 학생의 수가, 상반되는 학생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찬가지로 메타인지가 발달한 J가 일의 처리 기한에 맞춰 계획을 세워 학습을 하는 CO 스타일 학습자인 경우가 많고(JCO = 22, 84.6%), 융통성이 있게 상황에 맞춰 일을 처리하는 P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열려 있는 O 스타일 학습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PO = 13, 54.2%).

이처럼 J-P 분류가 영어학습스타일과 가장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아본 J. Kim(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듣기와 같은 이해 능력일 때는 주어지는 입력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것이라 Jung이 태도와 기능을 융합하여 J-P를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표현 능력인 말하기나 쓰기에서도 J-P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지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J-P가 태도와 기능을 융합하여 설정된 새로운 유형이고, G-A는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이 학습 행동을 할 때, 특히 읽기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예측인자였으므로(Lee, 2008), 읽기시험 성적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두 유형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TABLE 1**  
*Profile of MBTI and SAS*

MBTI	SAS	$\chi^2$ (df)	p	No. of Students with MBTI and SAS (%)
E-I	G-A	.22 (1)	.640	EG = 17 (77.3%), EA = 5 (22.7%) / IG = 20 (71.4%), IG = 8 (28.6%)
		1.20 (2)	.548	EV = 17 (77.3%), EAu = 2 (9.1%), EH = 3 (13.6%) / IV = 21 (75.0%), I Au = 5 (17.9%), IH = 2 (7.1%)
Ext-Int		17.53 (1)	<.001	EExt = 16 (72.7%), EInt = 6 (27.3%) / IExt = 4 (14.3%), IInt = 24 (85.7%)
CS-IR		1.03 (1)	.310	ECS = 11 (50.0%), EIR = 11 (50.0%) / ICS = 18 (64.3%), IIR = 10 (35.7%)

MBTI	SAS	$\chi^2$ (df)	p	No. of Students with MBTI and SAS (%)
	CO-O	.10 (1)	.754	ECO = 14 (63.6%), EO = 8 (36.4%) / ICO = 19 (67.9%), IO = 9 (32.1%)
	N-S	.02 (1)	.877	NG = 18 (75.0%), NA = 6 (25.0%) / SG = 19 (73.1%), SA = 7 (26.9%)
V-Au-H	2.29 (2)			
	Ext-Int	.12 (1)	.729	NExt = 9 (37.5%), NInt = 15 (62.5%) / SExt = 11 (42.3%), SInt = 15 (67.7%)
	CS-IR	20.63 (1)	<b>&lt;.001</b>	NCS = 6 (25.0%), NIR = 18 (75.0%) / SCS = 23 (88.5%), SIR = 3 (11.5%)
	CO-O	1.21 (1)	.272	NCO = 14 (58.3%), NO = 10 (41.7%) / SCO = 19 (73.1%), SO = 7 (26.9%)
	T-F	.44 (1)	.509	TG = 21 (77.8%), TA = 6 (22.2%) / FG = 16 (69.6%), FA = 7 (30.4%)
	V-Au-H			
	Ext-Int	.22 (1)	.643	TExt = 10 (37.0%), TInt = 17 (63.0%) / FExt = 10 (43.5%), FInt = 13 (56.5%)
	CS-IR	.04 (1)	.845	TCS = 16 (59.3%), TIR = 11 (40.7%) / FCS = 13 (56.5%), FIR = 10 (43.5%)
	CO-O	1.19 (1)	.276	TCO = 16 (59.3%), TO = 11 (40.7%) / FCO = 17 (73.9%), FO = 6 (26.1%)
	J-P	4.37 (1)	<b>.037</b>	JG = 16 (61.5%), JA = 10 (38.5%) / PG = 21 (87.5%), PA = 3 (12.5%)
	V-Au-H			
	Ext-Int	.12 (1)	.729	JExt = 11 (42.3%), JInt = 15 (57.7%) / PExt = 9 (37.5%), PInt = 15 (62.5%)
	CS-IR	3.82 (1)	.052	JCS = 19 (73.1%), JIR = 7 (26.9%) / PCS = 10 (41.7%), PIR = 14 (58.3%)
	CO-O	8.37 (1)	<b>.004</b>	JCO = 22 (84.6%), JO = 4 (15.4%) / PCO = 11 (45.8%), PO = 13 (54.2%)

일상생활에서는 T 유형인지 F 유형인지가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영어학습스타일 중 어떠한 분류와도 관련이 없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학습과 관련된 행동을 연구하는 기존 연구(Lee, 2008; Chen & Hung, 2012; Lee & Oxford, 2008; Oxford, 2003)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영어학습에 본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던 것과 관련이 있겠다. T와 F의 유형이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격유형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를 영어학습 및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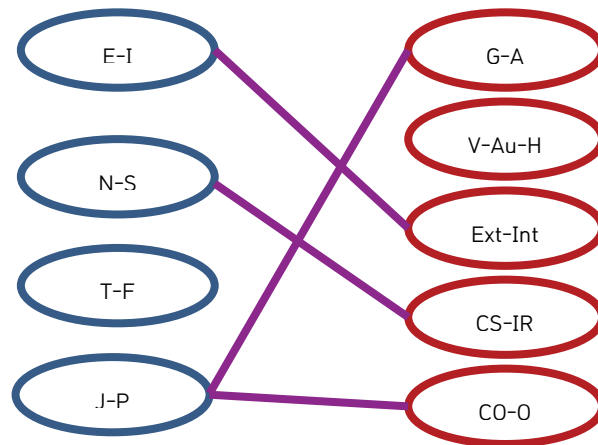
또 흥미로운 점은 영어학습스타일 중 신체 감각 선호도가 성격유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각적인 자료를 선호하는지, 청각적인 설명을 선호하는지, 몸을 움직여야 집중을 하기가 용이한지와 관련이 있는 영어학습스타일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학습자료와 집중에 대한 선호도인데, 이는 본 연구 참여자 개인의 성격유형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알려진대로(Reid, 1987),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대다수가 V 스타일의 학습자(EV = 17, 77.3%, IV = 21, 75.0% / NV = 17, 70.8%, SV = 21, 80.8% / TV = 17, 63.0%, FV = 21, 91.3% / JV = 21, 80.8% PV = 17, 70.8%)이므로 이는 성격유형과 무관하게 영어학습 상황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중, 영어학습스타일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던 T-F 유형 중 T 유형이면서 V 스타일의 학습자의 비율이 다른 조합의 유형들보다 낮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유형 학습자들은 다른 성격유형과는 달리, V 스타일의 학습자의 비중이 낮으면서 Au 스타일(JAu = 6, 22.2%)과 H 스타일(JH = 4, 14.8%)의 학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히 T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신체 감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격유형 중 세 가지가 영어학습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그림 1).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SAS 영어학습스타일 용어 대신, 더 익숙한 MBTI 성격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영어학습 상황에서 교사들은 MBTI를 너무 흥미 위주나 학습과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학습 상황과 연계된 영어학습스타일(Ext-Int, CS-IR, CO-O)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MBTI 유형중 E-I 유형에 따라 그룹활동(Ext)과 개별활동(Int), N-S 유형에 따라 번호가 있는 지침을 따라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연역적 설명(CS)과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학습해보도록 하는 귀납적 활동(IR), J-P 유형에 따라 마감 시간을 미리 제시하여 스스로 계획된 절차를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CO)과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탐구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활동(O)을 매칭해보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FIGURE 1**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s and SAS Styles*

###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 따른 읽기 점수 차이

MBTI 성격유형이 SAS 영어학습스타일을 대신해서 영어학습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에서 유의미한 관계도를 표시한 3가지의 성격 유형이 영어읽기 점수와도 관계가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사전과 사후 읽기시험 총점과 3장에 언급한 G-A 문제 각 총점을 구분하여 함께 비교해보았다.

다시 말해, 토익이나 수능 영어 시험과 같은 우리나라 표준화된 영어 읽기시험 문제는 크게 전체적인 주제나 요점을 묻는 G 문제와 세부적인 디테일을 확인하는 A 문제로 나눌 수 있다(S. Kim, 2016; Lee, 2008). 따라서 위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유형에 따라 읽기 시험 전체 점수와 G-A 문제 총점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시험의 점수로 동질성 여부를 우선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시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이 없었으므로, 각 유형 구분에 따른 집단 내의 차이는 없었다. 예를 들면, E 유형의 학생 중 그룹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EExt)과 개별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EInt)의 읽기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J 유형의 학생 중 마감일에 따른 계획을 세워 학습하는 학생들(JCO)과 많은 가능성에 열려 있는 개방형 학생들(JO)의 읽기 점수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학생들이 유형과 무관하게 사전 시험에서는 동일한 읽기능력을 보였다.

**TABLE 2**  
Summary of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 Scores

MBTI	SAS	Pre-test			Post-test		
		Total Score	G Total Score	A Total Score	Total Score	G Total Score	A Total Score
E-I	EExt vs. EInt	X	X	X	X	X	X
	IExt vs. IInt	X	X	X	X	X	X
N-S	NCS vs. NIR	X	X	X	X	X	X
	SCS vs. SIR	X	X	X	O ( $p = .006$ : SCS < SIR)	O ( $p < .001$ : SCS < SIR)	X
J-P	JCO vs. JO	X	X	X	X	X	X
	PCO vs. PO	X	X	X	X	X	X
	JG vs. JA	X	X	X	X	X	X
	PG vs. PA	X	X	X	X	X	X

사후 시험에서는 읽기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 구분이 있었다. 다른 유형들은 모두 사전 시험에서처럼 각 유형 내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N-S 유형 중 S 유형에서 CS 스타일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SCS)이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 IR 스타일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SIR)보다 읽기 총점(SCS:  $M = 82.62$  ( $SD = 11.78$ ), SIR:  $M = 95.27$  ( $SD = 4.10$ ),  $t = 3.71$ ,  $df = 24$ ,  $p = .006$ )과 G 문제 총합(SCS:  $M = 81.37$  ( $SD = 16.36$ ), SIR:  $M = 100.00$  ( $SD = 0.00$ ),  $t = 5.46$ ,  $df = 24$ ,  $p < .001$ )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A 문제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는 사후 시험에서도 사전 시험처럼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없었다. 특히 J-P와 G-A의 관계에서 다른 유형들처럼 일치되는 경우가 상반되는 경우보다 수가 많았고, 각자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매칭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JG와 PG인 학생의 수가 JA와 PA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던 마지막 그룹에서도 기대와 달리 읽기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예상 밖이었던 결과였다. 동일한 읽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MBTI 성격유형 및 SAS 영어학습스타일 진단을 한 후, 읽기 지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읽기 활동을 할 때 더 어렵거나 쉬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S 유형과 더 일치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스타일보다는 스스로 본인만의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스타일의 학생들이 읽기 총점과 G 문제 유형의 사후 읽기 시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유형에서만 차이가 보인 결과는 이 유형이 특히 학습결과보다는 선호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계가 있다(Bayne, 2005). 또한 객관식 및 주관식 등 문제 형태와 관계가 깊었던 N-S 유형에 대한 연구(Ayadi et al., 2006)와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인의 성격유형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영어학습을 하는 스타일의 경우 동일했던 읽기 점수가 사후에는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보아, 노력을 더 하는 경우에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Smith et al., 2021). 다시 말해, 교실 현장에서 오히려 성격유형과 반대되는 학습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왜 A 문제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p = .450$ ), 다른 유형의 조합에서 서로 상반되는 학생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4.1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격유형과 유사한 영어학습스타일인 학생의 수가 상반되는 학생의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상반되는 학생들의 성적이 유일하게 높았던 것도 수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각 유형의 조합별로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유형별로 데이터 분할을 한 후, 각 읽기 점수의 사전과 사후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 시험에 비해 사후 시험에 유의미하게 읽기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은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이 상반된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하는 학생들이었다.

표 3에 각각 일치하는 경우와 상반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를 알아보기 쉽도록 요약하였다. 예를 들면, E-I 일치는 E 유형이 Ext 스타일 영어학습을 선호할 때와 I 유형이 Int 스타일 영어학습을 선호할 때이고, E-I 상반은 I 유형이 반대인 Ext 스타일, E 유형이 반대인 Int 스타일 영어학습을 선호할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EExt 학생들이 G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 가까운 향상도를 보이는

것( $p = .056$ )을 포함하여, 일치하는 방식으로 영어읽기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상반된 학생들(IExt와 EInt)보다 읽기에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외향적인 학생들은 본인의 성격유형이 선호하는 방식인 그룹활동 등을 활용한 영어읽기 학습을 했을 경우, 그리고 내향적인 학생들도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인 개별 및 소규모 활동 등을 활용했을 경우, 읽기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외향적인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개별 및 소규모 활동으로 학습했을 때, 내향적인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룹활동을 주로 했을 때, 읽기 점수가 향상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J-P 유형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영어읽기 활동을 선호하는 경우(JCO와 PO), JCO 학생들의 G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메타인지가 발달하여 계획을 선호하는 J 유형이 수업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마감지향적 읽기 활동을 할 때와 융통성이 있게 상황에 맞춰 일을 처리하는 P 유형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열려 있는 개방형 읽기 활동을 할 때 읽기점수는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처럼 표 3에 표시된 대로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이 일치할 때 읽기 점수가 향상된 경우가 총 8가지 조합 중 6개 조합(EExt, IInt, SCS, JCO, PO, PG)이었으며, 상반되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경우는 총 8가지 조합 중 1개(PCO)뿐이었다. 이를 통해 P 유형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열려 있는 개방형 읽기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마감지향적 읽기 활동을 해도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J-P와 CO-O의 조합의 경우, J 유형이 개방형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향상 정도를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 중 J유형이 많을 경우, 주어진 시간과 방법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하며, 개방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할 때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ABLE 3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 Scores in terms of Alignment of MBTI and SAS

Aligned?		Total Score		G Total Score		A Total Score	
		Improved( $p$ )	Pre-Post( $M$ )	Improved( $p$ )	Pre-Post( $M$ )	Improved( $p$ )	Pre-Post( $M$ )
E-I	EExt	↑(.022)	64.73 < 83.04	= (.056)	67.86 = 82.14	↑(.013)	61.61 < 83.93
O	IInt	↑(.003)	67.86 < 85.14	↑(.013)	68.45 < 86.31	↑(.005)	67.26 < 83.93
E-I	IExt	= (.087)	50.03 = 76.78	= (.096)	46.43 = 82.14	= (.141)	53.57 = 71.43
X	EInt	= (.741)	77.38 = 80.97	= (.876)	78.57 = 76.19	= (.235)	76.19 = 85.71
N-S	NIR	= (.112)	72.23 = 81.36	= (.207)	73.81 = 82.54	= (.097)	70.63 = 80.16
O	SCS	↑(.001)	59.94 < 82.62	↑(.008)	60.25 < 81.37	↑(<.001)	59.63 < 83.85
N-S	SIR	= (.110)	69.03 = 95.27	= (.184)	71.43 = 100.00	= (.088)	76.67 < 90.48
X	NCS	= (.401)	73.80 = 85.72	= (.465)	76.19 = 85.71	= (.363)	71.43 = 85.71
J-P	JCO	↑(.032)	67.21 < 81.18	= (.160)	68.18 = 79.22	↑(.011)	66.23 < 83.12
O	PO	↑(.010)	58.79 < 83.53	↑(.013)	59.34 < 86.81	↑(.014)	58.24 < 80.22
J-P	PCO	↑(.012)	68.84 < 87.02	↑(.019)	72.74 < 89.61	↑(.027)	64.94 < 84.42
X	JO	= (.715)	82.15 = 83.95	= (1.000)	78.57 = 78.57	= (.638)	85.71 = 89.29
J-P	JG	= (.094)	69.19 = 81.26	= (.293)	71.43 = 79.46	= (.051)	66.96 = 83.04
O	PG	↑(<.001)	60.89 < 85.72	↑(<.001)	61.90 < 88.44	↑(.001)	59.86 < 82.99
J-P	PA	= (1.000)	80.97 = 80.97	= (.742)	90.48 = 85.71	= (.423)	71.43 = 76.19
X	JA	= (.200)	70.01 = 82.16	= (.387)	67.14 = 78.57	= (.095)	72.86 = 85.71

요약하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경우는 본인의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이 일치하는 경우에 읽기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상반된 경우 중 유일하게 향상된 P 유형의 경우 CO 스타일을 선호할 때 학습 효과가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읽기문제의 유형 자체는 성격유형이나 영어학습스타일에 따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나 요점 등을 파악하는 G 유형 문제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A 유형 문제인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읽기문제 자체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의 분류 중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조합을 찾았고, 이에 따라 영어 읽기능력의 향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성격유형과 일치하는 영어학습스타일을 선호할 때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떤 학습자료가 특히 효과적인 자료일지, 일치 조합에서도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언급하는 MBTI 성격유형을 영어학습에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다. 영어학습 상황에서 '성격'과 비슷하게 학습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학습스타일과 MBTI 성격유형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영어읽기 점수의 향상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총 5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가 시행한 MBTI 성격유형 결과와 영어학습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SAS로 영어학습스타일을 측정된 결과를 카이제곱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에서는 T-F 유형의 구분이 많이 언급되지만, SAS 영어학습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없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V 스타일이어서 시각적인 자료를 선호하지만 이런 신체 감각 선호도도 MBTI 성격유형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유형과 스타일에서는 서로 관계가 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조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E-I와 Ext-Int, N-S와 CS-IR, J-P와 CO-O),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G-A 스타일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듣기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J-P 유형이 다른 조합들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다시 말해, 비슷한 특성이 있는 조합(EExt, IInt, NIR, SCS, JCO, PO)이 그렇지 않은 조합(EInt, IExt, NCS, SIR, JO, PCO)보다 학생 수가 많았던 경우와 달리, JG와 PG 학생 수가 JA와 PA 학생 수보다 많았다. 이는 J-P 유형이 나머지 세 가지 유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조합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생소한 용어 대신 MBTI 성격유형을 이용하여 영어학습에 필요한 행동과 스타일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읽기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 시험에서는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 모든 조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후 시험에서는 SIR 학생들이 SCS 학생들의 읽기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서,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스타일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상반되는 경우가 학습에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각 조합에 대한 읽기 점수의 향상도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확인해본 결과는 달랐다. 총 8가지 조합의 일치되는 경우(EExt, IInt, NIR, SCS, JCO, PO, JG, PG) 중 총 6개에서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인 반면, 총 8가지 조합의 상반되는 경우(EInt, IExt, NCS, SIR, JO, PCO, JA, PA) 중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인 것은 1개뿐이었다. 다시 말해, 사전 시험에 비해 사후 시험에서 읽기점수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본인의 성격유형과 영어학습을 하기 위해 선호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6주 동안 어떤 유형의 문제가 풀기 어려운지, 쉬운지, 좋은지, 꺼려지는지 등 본인의 성격유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영어읽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해 인터뷰나 생각말하기(think-aloud protocols) 등을 통해 깊이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총 50명의 학생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MBTI 성격유형 4쌍, SAS 영어학습스타일 5쌍 등 조합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각 조합에 소수의 학생이 속하는 경우들이 있어 비교를 하기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적은 수가 포함된 그룹이 있어 비교를 하기가 적합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를 포함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MBTI 용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각 유형이 이산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카이제곱검정 외에 상관관계를 보기가 어려웠으므로, 연속적인 스케일로 전환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었으나, 상기했듯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영어학습 상황으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읽기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6주 동안의 읽기 활동에서 개념은 익숙할지라도 SAS 영어학습스타일 용어는 다소 어려워하면서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일치되는 조합의 MBTI를 활용하여 본인의 읽기활동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했을 때는 매우 수월하게 묘사하며 진단과 처방을

스스로 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의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MBTI 성격유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개념을 영어학습스타일을 대체해서 학습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과 SAS 영어학습스타일이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학습활동 및 모델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References

- Ackerman, P. (1996). Intelligence as process and knowledge: An integration for adul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W. Rogers, & A. Fisk et al. (Eds.), *Aging and skilled performance: Advances in theory and application* (pp. 139-156). Erlbaum.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Holt.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olt, Reinhart & Winston.
- Ayadi, O. F., Chatterjee, A., & Woldie, M. (2006). Matching testing strategy with student personality in a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Journal of College Teaching and Learning*, 3(3), 87-93.
- Bayne, R. (2005). The MBTI versus the TDI: A reply to Roy Childs. *Selec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1), 20-21.
- Bell, M. A., Wales, P. S., Torbeck, L. J., Kunzer, J. M., Thurston, V. C., & Brokaw, J. J. (2011). Do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impact students' evaluations of a surgery clerkship?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68(3), 190-193.
- Blutner, R., & Hochnadel, E. (2010). Two qubits for C.G. Jung's theory of personality. *Cognitive Systems Research*, 11(3), 243-259.
- Carrell, P. L., Prince, M. S., & Astica, G. G. (1996). Personality type and language learning in an EFL context. *Language Learning Journal*, 46, 75-99.
- Cattell, R. B. (1965).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Penguin.
- Celik, H. (2015). Review of research method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practical guide. *Euras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1), 113-115.
- Cervone, D., & Caprara, G. V. (2001). Personality assessment. In N. J. Smelser & P.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Online, pp. 11281-11287). Elsevier Ltd.
- Chen, M.-L., & Hung, L.-M. (2012). Personality type, perceptual style preferences, and strategies for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0(9), 1501-1510.
- Datan, N., Rodeheaver, D., & Hughes, F. (1987). Adult development and ag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1), 153-180.
- Dewaele, J. M., & Furnham, A. (1999). Extraversion: The unloved variable in appliedlinguistic research. *Language Learning*, 49(3), 509-544.
- Ehrman, M. (1990). Owls and doves: Cognition, personality, and learning success. In J. E. Alatis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1990* (pp. 413-437).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Ehrman, M. (1996). *Second language learning difficulties: Looking beneath the surface*. Sage.
- Ehrman, M., & Oxford, R. L. (1995). Cognition plus: Correlates of language learning success. *Modern Language Journal*, 79(1), 67-89.
- Eysenck, H. J. (1982). The biological basis of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Blood group antigens. *Psychological Reports*, 51(2), 531-540.
- Furnham, A., Moutafi, J., & Crump,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sed NeoPersonality Inventory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6), 577-584.
- Holzman, P. S. (2020). Personality. In *Encyclopædia Britannica*.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www.britannica.com/topic/personality
- Jung, C. G. (1921).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www.jungiananalysts.org.uk/wp-content/uploads/2018/07/C.-G.-Jung-Collected-WorksVolume-6\_-Psychological-Types.pdf
- Kaushal, V., & Patwardhan, M. (2018). Emerging trends in personality identification using online social networks—A literature survey. *ACM Transactions on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 12(2), 1-30.
- Kim, Jina. (2017). *A study of English listening learning strategies based on Myers-Briggs Type Indicator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ong-Ang University.
- Kim, Soo-Yoon. (2016). *The effects of different instruction orders on English learners' reading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Lee, Kyoung Rang. (2008). Myths and realities of English learning strategies and styl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8(4), 501-522.
- Lee, Kyoung Rang, Kim, Soo-Yoon., & Lim, Okyoung Jenny. (2023). The effects of video-based reading strategy instruction materials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strategies and comprehension. *Modern English Education*, 24, 187-207.
- Lee, Kyoung Rang, & Oxford, R. L. (2008). Understanding EFL learners' strategy use and strategy awareness. *Asian EFL Journal*, 10(1), 7-32.
- Long, M. H. (1990). The least 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needs to explain.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c.*, 24(4), 649-666.

- Lundgren, H., Kroon, B., & Poell, R. F. (2017). Personality testing and workplace training: Exploring stakeholders, products and purpose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41(3), 198-221.
- Mackey, A., & Gass, S. M. (Eds.). (2012). *Research method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Wiley-Blackwell.
- Moody, R. (1988). Personality preferences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72(4), 389-401.
-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 (1998). *MBTI®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strument* (Third). CPP, Inc.
- Oxford, R. L. (1990a).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Cengage Learning.
- Oxford, R. L. (1993). The role of the language learner.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3, 175-187.
- Oxford, R. L. (2003). Language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Concepts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41(4), 271-278.
- Pfister, A. A. (2000).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of bilingual students on Englishreading performance in a computer-driven developmental reading laboratory: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leaders*. University of Houston.
- Pittenger, D. J. (2005). Cautionary comments regard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7(3), 210-221.
- Reid, J. M. (1987). The learning style preference of ESL students. *TESOL Quarterly*, 21, 87-111.
- Sadeghi, N., Kasim, Z. M., Tan, B. H., & Abdullah, F. S. (2012). Learning styles, personality types and reading comprehension performance. *English Language Teaching*, 5(4), 116-123.
- Smith, R., Snow, P., Serry, T., & Hammond, L. (2021). The role of background knowledge in reading comprehension: A critical review, *ReadingPsychology*, 42(3), 214-240.
- Steele, A. L., & Young, S. (2011). A descriptive study of Myers-Briggs Personality Types of professional music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with comparisons to undergraduate majors. *Journal of Music Therapy*, 48(1), 55-73.
- Stein, R., & Swan, A. B. (2019). Evaluating the validity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theory: A teaching tool and window into intuitive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3(2), 1-11.
- Vincent, A., & Ross, D. (1996). *Learning styles: Strategies for the classroom*. Southwestern Business Administration Teaching Conference, Houston, 93-97.
- Wheelis, A. (1973). *How people change*. Harper & Row.